

泰西教育의 歴史的 觀察 (十七)

룻소氏

鼎言生

룻소씨 (二)

『氏의 教育主義』 氏는 人性에는 本是로 邪惡이 無하나 其邪惡에 赴함은 오직 社會의 汚風에 感染하는 故이로다. 自然의 勢力은 常히 公正純良하여 人性을 損傷함이 無함으로써, 其教育은 自然의 理法에 從하여 自然界에 生長하여서 自然의 要求하는 바에 適應함으로 社會의 風潮를 避하고 其精神의 汚染을 防하며 社會의 諸勢力에 抗하여, 自然히 其諸能力을 啓發케 할 者이라. 兒童의 發達期는 三期로 分하여 急進的 教育을 授하여서, 其諸能力의 養育上 自然의 要求에 適할 것을 考할 者이며, 其教育方法은 卓越한 情操와 高대한 眞理를 包含케 할 것이라.

蓋當時 佛國은 全歐 文明의 中心地가 되였스나, 浮薄의 俗을 脫치 못하고 信義가 地에 墮하며 人爲의 勢力이 其極端에 達함으로써, 教育法과 如한 것도 全히 人爲的에 陷하여 其弊가 多大하도다. 此를 看破하기 爲하여 自然의 理法에 從하여 人間教育의 大主義를 唱하얏도다. 故로 彼の 『에밀[에밀]』은 熟考의 意見에서 出한 卓論으로 一時의 議論的 著作이 아님은 今古의 正評이 有한 바이라. 또는 單히 實踐的 教育論이 아니라 廣히 教育의 全體系를 論述하여 正理의 發達과 道德의 鍛鍊에 就하여 人의 自然性을 分解한 者이로다.

『氏의 大著書 에밀』 氏의 大著書 『에밀』은 一七六二年에 出版하여 其의 教育改革上의 大勢力을 歐洲 各國에 傳播하여, 殊히 獨逸과 如한 國에서는 其影響이 非常히 大하얏도다. 蓋 氏의 意見은 決코 突然히 出한 者 아니라. 『몬테뉴[몽테뉴]』 及 『록크』의 意見을 基礎로 하여 此에 氏의 達識을 加한 者으로써, 當時에 가장 有力한 議論의 一이로다. 此時에 當하여 佛國議會는 『씨쓰잇트』派를 却하고 從來의 古格舊式을 破壞하고, 萬事 改革의 氣運에 向하는 時이로다. 然하여 教育上에도 一大刷新을 希望하는 時인즉 『에밀』은 大

히 世의 歡迎을 受할 뿐, 不啻가 改革的 原動力이 되니라. 蓋 『예밀』은 其書가 或은 寓話를 交하고 誠刺를 加하며 或은 小說이 되고 或은 論文이 되어, 自然說로써 全篇을 一貫하얏스며 教育上 一般의 組織을 示한 者이라. 今에 『예밀』의 教育法을 概說하건대, 第一期, 此는 『예밀』이 生한 時로부터 十二歲에 至한 間의 記事이라. 抑 『예밀』은 父母가 共히 早沒한 孤兒로써 此를 教育함은 單히 自然 뿐이엇도다. 然즉 宜히 自然으로써 其本分을 得게 할 者 되어야 自然의 自由에 一任할 바이라. 故로 其四肢百體의 活動도 自然됨을 障害할 者 아시오, 又 自體의 鍛鍊을 圖하며 平素 艱辛에 慣하고 夙히 此에 處할 道를 知케함으로써 强壯한 自體를 養育할지오, 心意의 教育은 自體의 教育과 均히 兒童의 思하는 바에 一任하고 唯自然의 境遇에 就할 者이라. 然즉 知力的 教育은 此를 禁하되 感覺은 諸能力 中 最初에 發現하며, 또한 成熟한 者인즉 專혀 實物과 自國語로써 能히 此를 修鍊케 하며, 幼者의 資質을 愛하고 快活을 要하며, 兒童 生存의 快樂을 感함에 至하야는 務하야 此를 獎勵하고 恒常 其向하는 바에 一任할 者이라.

第二期, 此는 『예밀』 十二歲로부터 十五歲에 至하기까지 智育을 施할 時機에 屬함으로써, 聰名慧智하야 實用的 人間이 되며 其學科도 實用的의 智識을 養成할 者를 撰하야 世界로써 教授材料로 하야 自然科學을 務할지니, 故로 星學은 가장 重要한 學課이며 地理가 其次이오, 古文, 歷史 等を 學케 할 지나 「로빈슨, 클소[로빈슨 크루소]」 等の 外書는 使用함을 禁할 者이니, 蓋 漂游記는 小說的으로써 自然教育을 論한 者이오, 『예밀』과 如히 社會에 賴치 아니하고 單히 自己의 志를 스스로 立코져 함이 아닌 故이라. 其教授法은 適當한 實物을 示하고 徐々히 兒童의 智覺으로써 內界의 觀念에 移하게 할 것 이라. 然하야 文學과 技藝 等の 學課를 先히 授할 者 아시오, 商工業 或은 農業 等を 學케 할지니, 此는 不幸의 運命에 遇하야 其資產을 失한 境遇라도 必須의 急을 救케 함을 覺悟케 할 것이라. 其齡이 이미 十五歲에 達한즉 事物의 良否를 看破하고 日用 必須의 智識을 得하며, 其正當한 價値를 計算하고 眞理를 愛하는 風을 養하며, 現在의 智識은 少하야도 將來에 此를 收得 利用함에 基礎가 되는 諸能力이 此에서 始함을 知得케 할 者이로다. 體育과 如한 者는 此를 尊重하고 此를 獎勵하야, 精神을 用함과 身體를 用함에 相補 相助하야 心健體健의 大要를 圖할지니라. 故로 峻險한 山野에 赴하야 野遊를 行하고 大海에 臨하야 水泳을 勵하야 勇敢 快活한 精神을 養하며, 冒險의 資格을 成하야 後日 事業場에 立하야 能히 艱苦를 耐하며 成功의 途를 開케 할 것이라.